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28> 어리석은 마음으로 도를 닦는 것

보통 선가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마음'이란 '가야 할 목적지를 모르고 공부하는 마음'을 말한다. 서울에서 출발하여 부산으로 가려면 남쪽으로 향해야 하는데 어리석게 북쪽 길로 가고 있다는 뜻이다. <선가귀감> 28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迷心修道 但助無明
어리석은 마음으로 공부하는 것은 오로지 무명만 더 키울 뿐이다.

앞서 말했듯이 어리석은 마음이란 가야 할 목적지도 모르고 공부하는 마음이다. 여기서 목적지는 '깨달음'이 비유하고 공부하는 '화두'를 챙기는 것'에 비유해서 한 말이다. 그렇다면 깨달음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깨달음이란 중생의 시비 분별에서 벗어난 부처님의 지혜요, 이 지혜로 보는 부처님의 세상을 말한다.

어리석은 마음은 무명만 키울 뿐 확실한 목적지 알고 화두 챙겨야

문자로써 사랑 분별하여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다. 이것은 중생의 무명만 더 키울 뿐이다.

불교(佛敎)란 마음을 깨치는 데 근본이 있다는 것을 선종에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언어문자로 근본을 삼는 교가(敎家)의 으뜸인 화엄종에서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이같은 <법성계> 내용에서도 알 수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바른 깨달음을 이룰 수 있을까?

서산 스님은 말한다.

悟若未徹 修習稱眞哉 悟修之義 如膏明相賴 目足相資。
부처님의 세상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서하는 공부를 어찌 참 공부라고 할 수 있겠는가? 부처님의 세상을 확실히 알고 공부한다는 뜻은, 기쁨과 불이 서로 의지하여 밝은 불빛이 있고 눈과 발이 서로 도와야 먼 길을 걸어 갈 수 있는 것과 같다.

합허독룡 스님도 <원각경> 보현보살장을 해설한 대목에서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

"기쁨과 불은 서로 의지하고 눈과 발은 서로 돕는다. 불이 기쁨을 얻지 못하면 밝은 불빛은 타오를 수 없고, 발이 눈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몇 발자국밖에 걸을 수가 없다. 불은 기쁨을 얻어서 더욱 밝아져야 그 불빛이 사라지지 않고, 밝은 눈이 있음으로 더 먼 길을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원각(圓覺)-깨달음, 부처님의 세상을 알고 하는 수행은 불빛을 환하게 밝혀주는 기쁨과 같고, 수행을 하는 데 원각에 대한 이해는 먼 길을 가는 데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될 눈의 역할과 같다. 원각을 알고서도 수행하지 않는다면 그 앞은 반드시 공허하고, 수행을 하면서도 원각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수행은 반드시 몇 걸음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이 때문에 수행을 하고자 하면 모름지기 먼저 원각을 알아야 하고, 이미 원각을 알았다면 모름지기 수행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문수보살은 먼저 '맑고 깨끗한 원각'을 알게 하고, 보현보살은 이 깨달음에 의지하여 수행을 하게 하였다." 합허 스님은 계승으로 이 뜻을 다시 말한다.

正解已成須起行 普賢所以問其方 難幻拂到無所離 不可離者是眞常
원각의 뜻 알고 난 뒤 실천수행 해야 할새 이 때문에 보현보살 수행방편 물어보니 화를 떨쳐 떨칠 것이 남았없이 사라진 환상 사라진 이 자리가 영원한 생명터라.

깨달음에 대한 확실한 이해 없이 무턱대고 공부하는 것은 풍족으로 가야 할 길을 서쪽으로 가는 것과 같아서, 깨달음과는 더욱 멀어지고 더 어리석어져 중생의 무명만 더 키울 나갈 뿐이다. 공부의 목적을 정확히 알고 난 뒤 방향을 잡아야 차근차근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가까워질 것이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목적지에 도달하게 된다. 깨달음이란 확실한 목적지를 알고 난 뒤에 화두를 챙겨야 참다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원승 스님(승광사 인월암) cafe.buddhapia.com/community/wonseung

한입에 소옥~ 불교 상식

전도

"교회에서 전도활동을 많이 한다지." 흔히 전도(傳道)하면 타 종교의 적극적인 선교활동을 떠올리게 된다. 국어사전을 펼쳐봐도 '주요 기독교에서 그 교리(敎理)를 전해 신앙을 갖도록 인도하는 일'이라고 정의되어 있을 정도이다. 하지만 전도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룬 것과 함께 시작된 역

사적인 것으로서 불교에서 나온 말이다. 부처님의 '전도활동'은 메나레스에서 설법한 초전법륜에서 시작되죠. 초전법륜이란 최초로 법의 수레를 굴리기 시작했다는 뜻으로, 이 최초의 설법을 통해 방대한 불교사상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도는 '전법'이란 용어와 동의어로 쓰입니다. 부처님은 초전법륜을 통해 전도의 의의를 다지게 되죠.

<불본행집행경>에서는 "이제 모든 천인과 인간들 속에서 그들을 제도하라. 많은 사람의 이익과 안락 위해 가도록 하라...나도 가서 교화하겠다"고 전합니다. 불자 여러분! 불교용어를 제대로 알고 실천하는 것도 신행입니다. 김철우 기자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 강의 (103)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2부 49장 아부의 노래, "물이 물길에 들었다"

경봉 스님의 <금강경>을 듣고 나니, 아부의 노래를 그냥 지나칠 수 없다.

1. 金佛不度爐, 木佛不度火, 泥佛不度水. 三佛形儀總不眞, 眼中瞳子面前人. 若能信得家中寶, 啼鳥山花一樣春.
"금부처는 용광로를 견디지 못하고, 목불은 불길을 뚫지 못하며, 진흙으로 만든 부처는 물에 그만 뜰개지고 만다. 이 세 부처의 형상은 진짜가 아니다. 눈동자는 그저 눈앞의 사람을 마주볼 뿐, 진실로 집안의 보물을 얻고나니, 문득 우짖는 새 산꽃이 다들 봄을 노래하고 있더라."
- "눈동자는 눈 앞의 사람만 본다"가 무슨 말일까. 1) 신문을 읽든 뉴스를 보든, 남의 말에서, 또 학자들의 개인인 법칙과 논평에서든, 사람들은 그 말의 꼬투리를 잡고 싶어한다. 그 전에 잘 듣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런데 정말 어렵다. "경청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이 성공한다." 2) 자기 수준만큼 세상을 본다. 세상에 대해서 말하는 시각, 남을 평가하는 인식는 곧 그 사람의 지적 수준과 자신의 가치를 그대로 보여준다. 흡사 거울과 같다. 무학대사의 만고 격언처럼 "부처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3) 위의 둘은 한담이고, 지금 아부의 노래는 인간의 눈이 밖을 향해 있다는 것. 그리하여 우리는 늘 밖을 향해 혁혁대고, 그리하여 내면적으로는 불안하고 빈곤하다는 실존적 사태 하나를 일러주고 있다.

돈교(頓敎)를 기억하라. 혜능과 아부가 한 목소리로 외친다. "너는 부자다. 마이크 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보다 투자의 귀재라는 워런 버핏보다 더 부자다. 진짜다."
<무문관>에는 청세의 구결이 실려있다. "저, 청세는 외롭고 가난합니다. 스님께서 좀 베풀어주시지요."
조산이 딱하다는 뜻이 말했다. "이보시오, 청세! 청원의 백가주를 셔 잔이나 들이 키고도 입술을 축이지 못했다 하시오."

2. 種瓜得瓜, 種果得果. 一佛二佛千萬佛, 各各眼橫鼻眞. 昔年親種善根來, 今日依前得樂力. 須菩提, 須菩提, 著衣喫飯尋常事, 何須特地卻生疑.
"오이를 심어 오이를 얻고, 과일을 심으면 과일을 얻는다. 한 부처 두 부처, 천만 부처를 보아하니, 하나같이 안횡(眼橫)에 비직(鼻眞)이라. 눈은 옆으로 찢어지고, 코는 아래로 뻗어있네. 예전에 심은 선근, 오늘에 그 힘을 얻었으니, 수보리여, 수보리여,

웃 걸치고 밥 먹는 이 일상사에, 다시 무슨 일을 기대하고 의심을 내는가."

- 보물은 자기 안에 있으나, 발견하기 전까지는 아직 자기 것이 아니다. 배라림, 베 풀고, 참고, 규율을 지키고, 정진 노력하고, 좌선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을 환상없이 바라보는 통찰력을 키우면, 모든 부처들이 얻은 그 열매를 너도 얻을 수 있다. 장담한다. "공 심은데는 콩이 나게 되어있다." 그 보물이 기지개를 켜며, 외부의 영향력을 줄어든고, 내면의 흥만과 고요는 더욱 깊어간

행복동 사람들

부부의 인연
배종훈 (bjh4372@hanmail.net)

몇 만겁의 공덕으로 만난 인연, 너무 소홀히 하시는건 아닌신지요?

cafe.buddhapia.com/community/happydong

절벽에서 손을 놓는 것이 장부



"구름 걷힌 하늘이 온통 푸른 한 빛이다!" 마음에 걸림과 분열이 없을 때 세상은 당연히 완전하다! 그때 우리는 구름은 하지만 차별은 없다.

4. 金不傳金, 水不洗水. 得樹攀枝未足奇, 懸崖撒手丈夫兒. 水寒夜冷魚難覓, 留得空船載月歸.
"금은 금을 주조하지 못하고, 물로는 물

(漸次)의 기대가 있다. 이 점교(漸次)의 길을 아부는 "나무를 의지해서 가지를 휘어잡는 다"로 비유했다. 그러나 진리는 지성의 구성을 통해서가 아니라 해체를 통해서 만난다. 저 언덕은 여기서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미 와 있다! 행복에 이르기 위해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왜냐. "너는 이미 다이아몬드 진보(七寶)를 은하수만큼 가진 부자이기 때문이다!" 그

러니 의존을 그치고, 절벽에서 그만 손을 놓아라. 나머지는 불성이 자연 길을 인도할 것이다. 이를 어느 시인은 "잊어버림으로써 기억한다"고 썼다.

때로 우리는 원래의 맥락과 의미를 놓치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옛것들을 쓰기도 하는데, 그 둘 사이의 엇갈림과 충돌을 곱씹다가, 가끔 손뼉을 치거나 발발을 튀기기도 한다.

5. 水到渠成. 終日忙忙, 那事無妨. 不求解脫, 不樂天堂. 但能一念歸無念, 高步毗盧頂上行.

"물이 드디어 물길에 들었다! 중일을 바쁘지만, 무슨 일든 무슨 상관이라. 해탈을 구하지도 않고, 천당을 기꺼워하지도 않으니... 다만 일념을 무념으로 풀릴 수 있어, 비로봉 정상에 어깨 펴고 걷는다."

- "물이 드디어 물길에 들었다." 정신적 신체적 에너지들이 자연의 길을 따라 흐르게 되었다는 뜻이다. 슬프면 웃고 기쁘면 웃는다. 그의 마음은 무념(無念)이라, 비어있기에, 상황에 따라 자꾸에 따라 반응한다. 주자학이라면 이를 "소리개는 하늘에 날고, 물고기는 연못에서 뛰다"고 표현하기를 즐겨 한다.

영어에 샤덴프รอย데(Shadenfreude)라는 말이 있다. 기원은 독일어인데, 이 말은 '남의 불행에 기뻐하는' 인간 내부의 오래된 사악함을 지적한 말이다. 이렇게 오물로 덮여 있으면, 불성의 물은 제 길을 가지 못하고 시궁창처럼 썩고 만다. 이 비참한 삶을 종식시키고 싶지 않은가. 정화하자,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도 이 시궁창을 대청소해야 한다. 그리고 싶어한다면, 그럴 수 있다. 누구나...

■한학죽중양연구원 cafe.buddhapia.com/community/plan_14